

길에서 길을 묻는 시들

—미주문학(06, 겨울호)의 시편들

조정권

(시인)

1.

이번 호에는 유달리 길에 대한 시가 많이 띈다. 길에 대한 언어적 상상력을 동원한 시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길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땅바닥에 질문을 되새김하는 것과도 같다.

걷는다는 것,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반성한다. 삶의 여정에서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다. 자기 검증적인 시적자아는 이때 발견된다. 삶이란 늘 노상에서 길을 묻는 것과 같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서 끝



시인. 현재 경희사이버대 문창과 교수. 197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1988년 한국시인협회상, 1991년 「산정표지」로 제10회 김수영문학상, 같은 해에 소월시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비를 바라보는 일곱 가지 마음의 형태』 외 다수.

나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 삶도 그러하듯이 길도 한 종착지점을 향해 찾아가는 여정이다.

길은 앞서간 자의 걸어간 자국일 수도 있다. 어떤 길이 인간에게 가장 보람되고 뚜렷한 길일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안전한 길일까. 우리는 이번 호에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나온 삶을 성찰해 본 시인들의 길의 의미를 추적해 볼 것이다.

만날 당신 떠올리고
찾아가는 길

울퉁불퉁 깔린 자갈
얼기설기 엉킨 가시덤불
뽀 발 절뚝대며
가시 찢린 핏자국으로 지나

(중략)

지도 펼쳐놓고
경험을 되살려도
길과 방향 묘연하니
믿을 것은 나침반 뿐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전진방향 인도하는
나침반을 되소서

—이기윤 「세상살이」

여기 진실되며 뚜렷한 구도적 소망을 담은 목소리가 있다. 삶의 길에서 '당신의 말씀'만이 나침반이라는 것이다. 나침바늘은 영원의 표상인 하늘의 별과 닿아 있다. 하늘의 길과 닿아있다는 것이다. 시인은 삶의 궁극적 목표를 하늘의 지고한 가치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지상에서의 우리의 길은 어떠한가. 작품에서 읽을 수 있듯 자갈길과 가시덤불길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살아오며 '뻔 발'과 '가시 찢린 핏자국'을 돌아본다. 그리고 의연히 그 빛을 나침바늘로 삼으며 말씀을 찾아 나설 것을 다짐한다.

만날 당신 떠올리고

찾아가는 길

이 시의 첫 연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현재의 모습을 두 줄로 담고 있다. '떠올리고' '찾아가는'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요 그 길은 미래에 까지 이어져 있다.

편지로도

말씀으로도

주지 않으셨다

조금씩 천천히

실체를 보여주셨다

때로는

원하기도

구하기도 못하고

소망을 잊고 있을 때
오셔서 손잡아 주셨다

—백선영 「응답」

앞서 살펴본 이기훈의 시가 구도적 삶의 빛(길)을 향해 의연히 걸
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라면, 백선영의 「응답」은 그 빛(길)을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내고 있다.

그 응답은 마음 안에서 얻은 어떤 자비롭고 넓은 '은혜'이다. 이 시
는 그 은총이 우리들 본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응답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
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좌절감을 느끼며 살
아간다.

시인은 말한다. 원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길 위에서 소망
마저도 잊은 채 방황하고 있을 때 '오셔서 손잡아' 주셨다고. 손잡아
주셨다는 말에는 이끌어 주셨다는 의미와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의미
가 포개져 있다.

응답은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생명이 마
음 안에 실체처럼 거할 때 충만감으로 나타난다. 소망을 잊고 있을
때 '오셨다'는 이 말은 즉 말씀 자체가 된 충만감이 내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의 깨달
음일 것이다. 말씀이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거하
고 있었다는 것이다.

원하고 구하는 행위는 삶을 다스리려는 자세이다. 삶을 다스리려
고 노력하지 말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 원하고 구하는 소망마저도
잊어버리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 그럴 때 응답은 언어로서가 아니

라 생명으로 나를 어루만져준다고 하였다. 마음이 생명과 동화되는
이 일체감.

곽상희의 길은 지금껏 오래 우리가 걸어온 인생 여정 위에서 시인
의 때로 회한스럽고 때로 비감어린 심정을 담아내면서 정서적 울림
을 낳는 공간역할도 한다. 시인은 살아온 시간의 의미를 반추하고 있
다. 시를 보자.

사람과 짐승의 발밑에 바스라진
모래, 향내 나는 바람
꽃잎의 떨리는 심장, 길가의 잡초
돌아선 그믐달, 책들과 시집들에게
내 첫 시와 마지막 시에게
내 푸른 숨결, 내 발에게 손에게
(중략)
아 아침해 빛나는 밤이슬
길모퉁이 쓸쓸한 그대, 찢어진 신문지 조각
추운날 자글자글 찌게국물 끓는 소리
누군가 가만히 내 어깨 얹는 손.
세상 어딘가에서 집으로 가는 길
잃은 사람, 갈 곳 없어 브로드웨이 한복판
고개 숙여 서 있는 저 사람
채워지지 않는 절망, 환한 희망에게 희망에게
낮게 앉은 욕망에게,
갓 떠난 꽃자리, 나무의 빈 마음
빛깔 없는 빛깔, 소리 없는 소리

어둠에게 빛에게
아, 끝없이 아득한 빛의 오르막길……

아무리 발효시켜도 발효되지 않는
빛 갇음의 길

—곽상희 「낮게 앉은 욕망에게」

이 시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시간을 재촉해오다가 이제 그 열띤 생의 가닥을 가다듬어야 할 나이에 접어든 한 사람의 지극한 자기성찰의 떨림을 만나게 된다.

향내 나는 바람, 꽃들의 심장, 내 푸른 숨결, 아침 해 빛나는 밤이슬들이 연민과 체념 사이에서 정제된 서정적 어조로 바뀌어가면서 ‘갓 떠난 꽃자리’ ‘나무의 빈 마음’ 같은 인생무상의 자연적 풍경으로 변주되고 있다. ‘누군가 가만히 내 어깨에 얹은 손’에 대한 무게감은 생의 숙명을 깊이 끌어안을 때의 비극적 정조의 생성에 깊이를 주고 있다. 살아온 시간에 대한 연민과 가야할 시간인 ‘빛의 오르막길’ 사이에서 시인은 삶을 ‘빛 갇음의 길’로 환치시켜 놓고 있다.

곽상희의 길의 상상력은 ‘끝없이 아득한 빛의 오르막길’ 같은 시간을 회구하며 과거에의 그리움과 미래에의 체념 사이에 놓여 있다. 그 체념이 아마도 낮게 가라앉은 욕망일 것이다.

최락완의 「길을, 길에 버리다」도 시간 흐름에 자기 존재를 투사하고 번뇌하는 고단한 여행자의 모습이 시의 표면에 나타나 있다. 팔만사천의 길이란 세속세계에 있는 번뇌의 길의 길을 뜻하고 있다.

지겨운) 길을 쳐다보다 라며 전혀 길은 쳐다보지 않네

느닷없이 길을 걸어보네 길 아닌 길은 어디에도 없으니
근신하라고 길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잊으라고 없어지라고
하지 말라고 팔만사천의 길이 없어져야 하는가 라고
이를테면 (혹여 끊임없이 생기기라도 하라고

—최락완 「길을, 길에 버리다」

불가에서 말하는 ‘직지망월’이란 말이 연상되는 이 시에서 우리는
길에서 길을 버리고 또다시 길을 묻는 행자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2.

이번 호에는 동물시가 또 유난히 많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오연
희의 「몽클거림에 대하여」, 한길수 「낙타와 상인 3」, 복영미 「이민
친구」, 유봉희의 「다야블로에서 만난 여우」이다.

아침 출근 길
차문을 열려다
발에 느껴지는 물결한 감촉에
뒷걸음 쳤다
발바닥에서 전해오는
더 두툼한 생명의 몽클거림
비명을 질렀다

흩어진 한 무더기
접합만 하면 숨을 몰아쉴 듯 싱싱한 내장과 살

그 오싹한 기분이
종일 몸에 붙어 다녔다
(생략)

—오연희 「몽클거림에 대하여」

이 시는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 키를 돌리려는 순간 발길에 밟힌 다람쥐를 소재로 하고 있다. 시인은 시 속에 암시하고 있지만 밟고 밟히는 것들의 운명을 떠올린다.

시인이 지금 뜻 없이 밟아버린 다람쥐, 그 생명의 몽클거림. 시인은 말하자면 가해자이다. 동물의 수난에 시인은 동정을 아끼지 않는다.

시인은 처지를 바꾸어 오싹했던 기분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고 고백하고 있다. 자신도 이 거대 문명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수난을 겪지나 않을까 불안하다. 오싹함을 느낀다는 것. 가해와 피해의 물고 물리는 교차와 반복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차가운 삶의 세태가 아닌가.

이 험한 삶의 실상은 심성이 고운 이민자의 마음속에 피해의식과 강박의식을 심는다. 이러한 불행한 삶의 섭리는 한길수의 「낙타와 상인 3」에서 명료하게 관찰된다.

엘에이 올림픽과 월턴 코너에 있는 성 그레고리 성당
일요일마다 노부부가 입구에 펼쳐놓은 청과물이 싱그럽다
손수 담은 청국장에서부터 과수원에서 가져다 파는 과일까지
고향향기를 베어물 듯 먹었던 찰옥수수과 노란 참외
(중략)

어느 날 신문에 낫익은 얼굴앞에 전구속에 빠진 내 동공
노부부가 아들과 함께 카지노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중략)

머느리와 손자들이 보던 성당 앞 노점도 한 달 보름 지나자
그 자리에 누가 마시고 버린 물병 하나만 떨어져 있다.

—한길수 「낙타와 상인 3」

이 시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일종의 문명비판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명비판을 담고 있는 이 시의 소재는 청과물 청국장 참외 같은 조그맣고 자잘한 일상의 자연이다. 시인은 거창한 사상과 힘 있는 목소리를 빌리지 않고도 미국 사회의 일상을 싱그럽게 포착하여 이민자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북영미의 「이민 친구」도 재미있는 작품이다.

라면이라고도 하고
인스턴트 푸드라고도 하데요

—북영미 「이민 친구」

라면은 한국산업화 사회가 낳은 대용음식의 꽃이다. 미국으로 건너간 식품이다. 시인은 라면을 두고 '이민 친구'와 같다고 말한다. 이민 친구를 김치로 치면 묵은 김치가 아니라 겉절이 김치 같다는 시각도 신선하다.

라면이라는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 이민자 사회에서도 매사를 용무적으로 생각하고 획일화 되어가는 인간관계의 허구성을 예리하게 통찰해 낸 이 시의 의미는 깊고 넓다.

유봉희의 「다야블로에서 만난 여우」는 동물시의 한 표본이다. 묘사가 완벽한 것은 그의 관찰력의 남다른 재능 때문일 것이다.

나무와 풀들은 따라오기를 포기한 산등성
송곳니 같은 바위들만 높게 낮게 앉아서
바람을 잘게 부수고 있다
바위 뒤에서 빠른 속도로 한 물체가 지나간다
조금 후 서서히 몸체를 드러낸다
길게 부풀려진 꼬리, 뾰족한 얼굴
저것은 여우다
돌 하나 집어 던지면 정확하게 닿을 수 있는 거리
그러나 그의 걸음은 너무나 태연하다
잠깐 맞춘 눈도 고인 물처럼 흔들림이 없다
저 조용한 몸짓은 믿음일까, 본성일까

—유봉희 「다야불로에서 만난 여우」에서

감정의 물기를 배제한 치밀한 묘사력이다. 묘사에 들뜸이 없다. 이 냉정한 대상 바라보기. 여우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고요. 인간을 경계하지 않는 성자와 같은 여우의 태연한 자태를 바로 앞에서 서로 마주하며 이 긴장력.

잠깐 맞춘 눈도 고인 물처럼 흔들림이 없다
저 조용한 몸짓은 믿음일까 본성일까

외워두고 싶은 구절이다.

이제 미주문인들의 시는, 개인적 서정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삶으로부터 종교적, 내면적, 문명비판적, 사회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있다. 현대적 서정성이란 자연친화적 서정, 내면적 감성의 상상력, 사회성, 도시적 서정성을 폭넓게 획득

하고 있다. 이 항목들은 한국의 현대시의 오늘을 잘 설명해주는 항목들이다.

마땅히 거론해야 할 시들과 시인들이 많지만 지면이 넓은 관계로 이번 호에서 빠졌다.

육신을 지나 정신에게 간다

—미주문학(06. 겨울호)의 소설들

황충상

(소설가)

소설은 육신을 지나 정신에게 간다

소설을 말하라. 무엇이냐. 진짜 이것이 소설이다를 말하라.

‘소설은 육신을 지나 정신에게 간다. 그래서 육신이 소설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다. 소설은 육신을 지나 오로지 정신에게 가서 먹히는 까닭이다.’

소설을 쓰면 배가 고픈 이유를 이런 식으로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그래도 문학이 그런대로 먹혔다. 육신의 배는 부르지 않았어도, 정신의 배는 불렀다. 정말이지 문학가의 명찰이 이마에서 빛이 났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가파르고 비정한



소설가, 한국사이버대, 경기대 겸임교수. 《문학나무》 주간.

현실을 끌어안으라는 것이다.

‘소설, 너는 육신의 급소에게 부딪쳐서 깨져라, 그리고 정신에게 먹히어 피흘리다가 죽어버려라.’

여기서 소설가는 소설이라는 화두를 깨친 말로 일러야 한다.

‘소설가는 소설로 소설을 사랑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현재에서도 소설은 소설로만 평가하고 매질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주문학 2006년 겨울호 소설가들이 얼마나 소설로 소설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제대로 평가됩니다.

이모를 통한 내 현생 보기

—박경숙 「전생을 봐드립니다」

박경숙 소설가는 그야말로 픽션(허구)을 안다. 더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굳이 환언하자면, 만들어야 할 이야기를 안다는 뜻이다.

작품 「전생을 봐드립니다」는 허구의 여성성이 자연스럽다. 무명 작가인 내 이모는 두 번 결혼했다. 첫 번째 남자에게서 버림받아 이혼한 이모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첫사랑을 찾아 미국에 가서 살다가 그 사랑을 버리고 돌아왔다.

사랑을 찾고 버린 여자,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전생을 찾아 떠났다.

어쩌면 그녀는 진짜 남의 전생을 봐주기 위해 한 소식 얻으려고 떠났는지도 모른다. 그 이모의 생을 통한 전생 보기로 내 현생을 구축한 이야기는 만든 허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허구로 읽힌다.

역지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지는 허구, 어머니의 피를 닮은 이모의

피가 내게서 자유한 까닭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모가 떠난 뒤 이모가 예비해둔 잠(수면제)에 취해본 뒤 내가 깨달은 답은 이렇다.

‘나는 허공을 난무하는 그 어떤 무수한 기운들을 포착하기 위해 눈을 멍하게 뜨고 마음을 여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좁은 길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모가 탔던 이생의 파도는 내 전생의 파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요기스럽고도 순결한 이모는 내 전생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전생에서 소망했던 것은 어쩌면 재미없도록 잔잔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생이었으리라. 정말 그렇게 거듭거듭 태어나는 업보를 지닌 것이 사람이라면—.’

소설로 소설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인용문 중 ‘마음을 여는 법을 알게 되었다’를 다시 곱씹어 본다. 어떤 맛이 난다. 허구로 우리 마음이 오가는 전생을 구축한 맛이 지 싶다. 나아가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 맛이 비위를 뒤집어 구토가 나오고, 창자가 뒤틀린다면 독자는 이 소설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징크스를 확인하는 우연

—윤명도 「4의 운명」

4자에 운명을 씌워 이만한 서사를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윤명도 소설가의 창작의지가 평가된다. 따라서 「4의 운명」은 윤명도 씨의 끈질긴 창작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생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만남으로 끝이 난다고 했다. 엄마와 아빠의 만남, 정자와 난자의 만남, 그리고 죽음이란 종장의 만남이 그것

이다.

「4의 운명」에서 주인공 나는 네 여자를 만난다. 화가 고희를 좋아하는 첫 번째 여자, 남자를 뱀으로 알았던 두 번째 여자, 결혼하고 그녀의 불륜으로 이혼한 세 번째 여자, 그리고 유년에 철길에서 남동생을 잃고 성장하여 결혼한 뒤 아이를 못 낳고 남편마저 떠나보낸 여자가 그들이다.

‘4의 운명론’에 길들여진 나는 네 번째 여자를 만나 그 콤플렉스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고자 시도한다. 십자가 목걸이를 두 개 사서 그녀와 내가 목에 걸고 기도하면 4자의 액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남동생, 남편이 사랑한 개,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이어 4자의 운명을 스스로 택하고 만다.

‘제4의 운명이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로 저를 택하였습니다. 4자로부터 자유하세요. 이제 4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아, 나는 4자 운명에 대한 죽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4의 운명」은 끝을 맺고 있다.

‘4의 운명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이었다. 나는 즉시 밤 공기를 뚫고 여덟 시간을 달려 그녀가 입원한 샌프란시스코 병원으로 향하였다. 병원에 도착하여 그녀가 있는 입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무심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4분이었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4번째 만난 여자의 4자 운명이 오히려 그 징크스를 깨는 결말은 인간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예상하게 한다.

윤명도의 창작 의지는 「4의 운명」에서 그 끈질긴 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에서 더욱 치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정확도가 요망된다 하겠다.

청각으로 듣는 소설

—조정희 「피아노」

음계, 음정, 화음. 음의 이야기는 청각에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각으로 듣는 소설은 고도한 명상의 문장을 가지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음악가가 작곡할 때 음색의 진동을 눈으로 보며 리듬을 엮어내듯이.

조정희 소설가의 「피아노」는 이에 얼마나 걸맞은 소설인가. 솔직히 음계를 보고 음정이 화음을 이룬 소설로 평가받기에는 그 평점이 높지 않다. 서정의 서사가 진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익수 오빠와 란수의 정감 원형이 사건으로 정치하게 묘사되지 못한 점 또한 지적 사항이다. 어떤 시도, 그 철저한 검증의 재미성이 오늘의 소설을 구축한다. 그렇다면 조정희 씨에게는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창작의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 모든 창작은 숙제의 과정에서 육화된다. 「피아노」는 숙성될 충분한 요소들이 많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란수에게 있어 익수 오빠가 그렇고, 익수 오빠에게 있어 란수가 그렇다. 이 간단명료한 이야기가 청각으로 듣는 소설이 되자면 작가의 창의적 고뇌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익수 오빠.

전주음 D장조 코드를 치고 나서 멜로디가 나오기 전까지 트레몰로 빠른 음을 네 소절까지 피아노 건반을 치노라면 내 몸은 새의 깃털과 같이 가벼워지면서 사랑의 꿈을 꾸는 추억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뒤따라 내 속에서 잠자던 모든 정의 화신들이 음률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진정한 내 자신이 깨어나듯이 말입니다.’

일인칭 소설에 있어 감정의 호소력 자체가 문제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오늘의 소설에서는 사실 답이 없다. 작가의 시대 정서 읽기 나름이니까. 다만 이성애 호소하기 위한 소설이라면 인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음악 정서가 깊은 「피아노」에 있어서 이 점은 필히 참고할 사항이다.

소설로 소설 사랑하기 세 가지 방법을 말하고 이 줄평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앞선 글쟁이의 글을 모방하지 않는다. 혹시 근사할 경우 승화하여 시비를 낳지 않는다.

둘째 새로운 고뇌의 방편을 낳는다.

셋째 그것들이 문학의 신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설은 오로지 쓰기를 멈추지 않는 소설가의 몫이다. 그러기에 소설가는 소설로 소설을 사랑할 뿐이다.

주제의 논리

—미주문학(06. 겨울호)의 수필들

하길남

(수필가, 문학평론가,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이사)

1. 머리말

수필이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상의 몇 단락이나 장면을 써 놓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놓으면 작품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의 논리에 따라 재구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들이 이 재구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상의 경험을 쓰고 나서 적당히 끝을 맺기 때문에, 사실상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른바 신변잡기에 머물고 마는 글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을 대표하는 수필’을 선정하기 위해 작년에 수필전문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대상 및 월간수필문학상 등 수상. 수필집, 비평집, 문학이론서, 수필작법 등 12권 펴냄. 현재 동 교육원 수필 전담교수.

지에 실린 수필 5천여 편을 읽었다. 이 중에서 80여 편을 골랐다. 말하자면 약 63분의 1이 뽑힌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수필의 현주소를 읽게 된다 하겠다. 60여 편 중에 한 편 꼴이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여타의 글들은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물론 각자 작품을 보는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비평가가 선정한 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시 아주 좋은 작품을 놓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필은 일상을 쓴다기보다 일상을 조립한다는 입장이 된다. 이 재조립 과정을 우리는 재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글을 쓰다보면 주제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일상의 이야기로 끝나고 만다.

우리는 흔히 덧없는 세월이라는 말을 듣는다. 즉 각성되지 못한 일상,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함몰된 일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의미가 박제된 일상인 것이다. 한낱 로봇일 뿐,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작품의 자료가 될 수 있겠는가. 문학적 형상화란 바로 자기의 삶의 형상화인 것이다. 그것은 일상의 재조립이며 바로 인생 조립인 것이다.

2. 박봉진님의 「세 가지 꽃」

① 밤의 꽃 아래향

‘아래향’과 ‘패션푸릇’, 그리고 ‘선인장꽃’을 다룬 이 수필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꽃들의 특성을 조합한 인간적 자기완성의 향방을 묻는 한 편의 서사시라 하겠다. 그래서 자연, 그 밤낮의 윤회를 배

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를 잠시 살펴보면, ① 밤 즉 아래향의 진품 ② 낮 그 패션푸릇의 분수(分數) ③ 밤낮의 선인장꽃 그 시대를 초월한 고전미 등이다.

길쭉한 잎사귀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가느다란 연두색 미니꽃, 낮엔 작은 붓끝 모양을 오므리고 밤엔 양증맞은 프림펫 같은 꽃잎을 펴서 그윽한 향기를 불어낸다…… 누가 눈여겨 봐주지도 깊은 속을 알아주려고도 않는다. 진품은 흠속에 묻혀 외면당하기 일쑤가 보다.

아래향은 진품이라는 이야기다. 꽃 중에서 말이다. 이 진품의 가치를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는 모양이라고 한다. 꽃은 외관상으로 아름답다워야 하는 것이니까. 장미는 아름답다. 말하자면 꽃의 속성은 우선 사람의 눈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아래향의 특징은 향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향기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도 그 진품인 것을 모른다면 외면당하게 마련인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진정한 진품의 가치는 겉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닐는지 모른다. 사람은 죽어보아야 안다는 말도 어쩌면 그 진정성이 그 사람이 가고 난 후에 알려진다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의 진가는 살아서 요란하게 알려지는 것보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알려져야 진짜 값진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은 관을 덮어보아야 안다고 했던 것이리라. 진정한 인생의 향취는 그가 떠나고 난 후에 드러나는 것이라 하겠다.

② 낮의 꽃 패션푸릇

담쟁이덩굴이 있었던 자리에 패션푸릇을 옮겨 심고 보니, ‘단감 대

추 레몬 아바카도 등 이십 여종이 되는 과목들의 배경과 잘 어울려' 옛 고향집 분위기를 자아내게 된 셈이다.

낮에만 피고 밤에는 오므린다. 정교하기 이를 데 없다. 속은 희나 두툼한 연록색 꽃받침 다섯 장에다 얇은 흰색 다섯 장을 겹들인 것은 내구력을 위한 디자인이라…… 열매도 일품이다…… 패션푸룻처럼 분수를 알고, 빈 곳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이만한 찬사라면 꽃으로서는 최상급이라 하겠다. ① 정교하고 ② 연록색 꽃받침 다섯 장, 얇은 흰색 다섯 장의 조화나 ③ 일품의 열매 ④ 분수를 알고 ⑤ 빈 곳을 채워주고 ⑥ 내구력을 위한 디자인 등.

그래서 '패션푸룻 한 그루만 심으면 웬만한 집 담장은 삼 년이면 다 뒤덮어질 것이다. 그것의 효용가치를 따진다면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이다. 패션푸룻은 염치없이 땅과 공간을 많이 차지하려 들지 않는다. 다른 초목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담장을 푸름으로 채운다'고 찬사가 끊이 없게 된다.

③ 밤낮의 꽃 5각 선인장

'밤낮의 꽃'이니 단연 돋보일 것이 아닌가. 이 꽃의 상징은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미'다. '너나 없이 변덕부림을 시대적응이라고 당연시하고 있는 세상이다. 케케묵은 생각이라고 등한시해도 할 수 없다. 고전미는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고 앞섰으니까.'하고 화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시대가 시대인 만큼'이라는 전제를 붙이면서, '제나 잘났으면 됐지'하고 만사를 현재적 자아에 귀결시키게 된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 근본이 중요한 것이야'하고

은근히 비쳐보는 것이 아닌가. 이 근본과 고전미의 함수를 생각해 보게 된다.

붕우리 때 펜타곤처럼 정5각형이더니 꽃도 꼭 무슨 무궁훈장 같은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한 가운데 별모양의 불가사리를 오려 붙인 듯, 위장복의 얼룩점 무늬를 닮은 정교한 꽃잎 다섯 장도 5각 형태이니 말이다.

좀처럼 보기 힘든 꽃이다. 참으로 묘한 꽃이기 때문에 ‘그처럼 희한한 꽃’이라고 했겠는가. 그래서 화자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약간 촌스러운’데가 있다 했으니 참으로 묘하다 하겠다. 그런가 하면 ‘수수하고 무뚝뚝하여 사내의 전형’이라고 했다. 역시 꽃 중의 꽃이라는 말로 정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세 꽃들은 “인간과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문학을 인간주의 문학과 예술지상주의 문학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꽃이라는 소재로 글을 쓸 경우, 그 속성상 후자에 속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시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화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주의 문학 쪽에 속할 것이다.

이른바 합승적(合乘的) 구성에 속하는 이 작품은 앞에서 보와 왔듯이 각각 인간의 일면들과 결부되어 있다. 이 세 편을 그대로 보완하는 인간형을 생각해 보면 거의 완성에 이르는 인간형 즉 그 형상화된 작품성과 대비되면서 역시 여운을 풍기는 성공한 수필로 기억된다.

그렇듯 교훈성이 짙은 작품으로 밤낮 즉 일상의 하루를 배경으로 삼아, 우리들 삶의 형상을 지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한 주제의 무게에 비해 미학적 향기가 가려진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그리고 ‘첫인상이 그랬고 말수가 적어 다가서기가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는

다.’고 술회한 경우 주어가 빠져있어 아쉬웠다.

3. 정찬열 님의 수필 「오프라 윈프리의 뒤집기 한 판」

어떤 의미에서 문학은 비유와 반전의 드라마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표현과 재미의 원형적 징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씨름판의 뒤집기 한 판승’은 인생의 역전을 실감하게 한다. 수필에 있어서의 반전 그 뒤집기도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

오프라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국제 에이미 방송인상, 아카데미 여조연상을 수상했고, 미국을 움직이는 여성 10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인권운동에 끼친 공헌으로 ‘유엔 세계지도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①

그녀는 ‘미시시피 주 시골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 10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할머니 곁에서 자라다가 과출부인 엄마를 따라……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돈을 훔치고…… 마약에 손대고…… 실연을 당하고…… 청소년 감호소에 갇히고. ②

①과 ②를 대비해 보면 전연 판 사람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유하자면 성인과 악마와의 차이를 연상하게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양아버지가 남긴 한 마디 말이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과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이때 오프라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 세상에 ‘오프라회’라는 단어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어떤 세계를 전적으로 변화, 개조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수필의 말미쯤에서,

꿈꾸는 자만이 꿈을 누릴 수 있다.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어 인생은 더욱 스릴이 있다.

고 말한다. 바로 씨름판의 용어, 즉 이 작품의 서두에서 보았던 ‘뒤집기’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 뒤집기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프라의 경우는 너무나 극적이고 소설적이며 교훈적이다. 세계 132 개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오프라 쇼를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가는 일이다.

한 편의 수필이 바로 비유로 되어 있는 작법상의 기법이 원용된 성공한 작품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상향을 향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이상형을 향해 자기를 비교해 보면서 부단히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좌절도 하게 되고 포기도 하는가 하면 편법이나 불법이 판을 치기도 한다.

이 수필은 전진과 성찰이 주는 교훈과 더불어 인간적 자기 만족과 성취에의 의지 그 성향을 자극해주는 스릴과 재미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극적인 자수성가의 실례들은 많다. 오히려 이보다 더 감탄을 금치 못할 사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인간문제에 답하는 철학성이 결들여져야 더 좋았을 것이다. 이른바 문학의 철학성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4. 고대진 님의 수필 「아르장유의 눈」

이 작품은 재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쓸쓸한가 하면, 인간의 심층 심리적인 일면을 그린 일종의 감상(鑑賞)수필이다. 영화화가 되어 화제에 오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대한 감상문이다. 말하자면 ‘다빈치 코드’의 중심 그림에 대한 작가의 해설을 겸한 감상적 비평수필인 셈이다.

그림 속 예수의 옆 자리에 앉은 인물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수염이 없다는 점, 다소곳이 모아 권손, 살짝 솟은 가슴 등 여성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아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에 의해 예수의 혈통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설은 수필과 달리 상상력과 허구의 반영인 까닭에 이러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

허구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다빈치 코드’라는 것도 그렇게 떠들썩할 이유가 없다. 다만 소설 속의 한낱 허구일 뿐 이니까. 그렇다면 허구와 상상력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흔히들 허구를 ‘있음직한 거짓’이라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진실의 원형’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없잖다.

상상력은 현실화의 징조라고 말하기도 한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아보리라는 상상을 한 탓에 마침내 비행기가 발명 되었듯이 말이다. 상상력은 발명의 어머니인 것이다. 우리는 수필을 쓸 때마다 수필학에서 상상력을 기법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해 늘 유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자는 예술의 감상에서 관객과 작가와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모네 전시회에서 만난 ‘아르장뛰유의 눈’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었다…… 그림 속의 회색 거리 위로 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었다. ‘아르장뛰유의 눈’이었다…… 담 옆의 좁은 길, 눈을 맞으며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이 작고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비유하자면 이 그림 속의 여인이 예수에게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았던 것이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그림 속 그녀를 쫓아다녔다’고 했다. 마침내 이 여인은 화자의 영원한 연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말하자면,

숨겨둔 정부(情婦) 하나/있으면 좋겠다/물래 나 홀로 찾아드는/외진 골목길 끝, 그집/불 밝은 창문/그리고 우리 둘 사이/숨막히는 암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끝없이 나를 충전시키는 여자.

위 시는 화자 자신이 이수익 시인의 시 「그리운 악마」에서 따온 것이다.

사람의 구성요소는 육체 정신 영혼이라고 한다. 이 말은 현실 이상 그리고 초월적 심상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바로 인간다운 끝없는 자기 충전의 전원이자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인간은 세속과 영원 자인 동시에 또 그 중간자인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전시회가 끝나고 그녀와 헤어지면서’, “제가 들어가야 할 집은 벌써 지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 이 묘한 여운을 독자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학에서 해석의 다양성, 의미의 중층성이라 한다.

이는 부정과 긍정 사이를 찾아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들어가야 할 집을 지나버렸으니, 갈 곳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 방황의 염치, 그러나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닌가. 이 예상하지 않았던 외도, 그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래서 소설의 허구처럼 수필의 상상력도 무한하다. 주제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문학의 교훈성을 가늠해 보는 산만(散漫)구성을 원용한 흥미로운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히려 산만구성법을 원용한 작품이기 때문에 주제의 원심적 탄력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산만성이 자칫 혼란성에 빠질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중후반부에 와서 그와 같은 구성상 의도 즉 표현적 의미의 비약이 있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5. 마무리

주제의 논리라고 했으나 이는 결국 수필에 있어서 일상의 재구성 문제가 된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화장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일사 분란한 주제의 정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용 산만구성의 수필이 아니라, 주제의 치열성보다 산만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다. 수필의 ‘붓 가는 대로’라는 정의는 그만큼 ‘달관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수필문학도 이른바, 서정 일변도나 아니면 분석 일변도에 치우치지 않는 ‘분석적 서정’이라는 시대흐름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 싶다.

편집후기

- 2007~8년도 임원들과 편집위원들이 만든 첫 호이다. 독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하다. 차차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더욱 알찬 미주문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 호들에서는 넣지 않았던 필자들의 사진과 약력을 매 작품과 함께 실었다. 독자들에게 볼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려는 의도였다. 갑자기 편집회의에서 새로 결정된 거라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다.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력과 사진이 오지 않은 작품들은 이번 호에서는 수록하지 못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

〈미주문학〉 작품 수시로 받습니다

본지에 작품 게재를 원하는 분들은 다음
의 각 호 마감날짜를 참조하되, 석 달만
에 나오는 계간지임을 감안, 특정호의 마
감에 구애됨이 없이 작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봄 호 1월 말 여름 호 4월 말
가을 호 7월 말 겨울 호 10월 말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주일 정도 늦
출 수 있으나 미리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 접수처: 협회 사서함

윤석훈 사무국장

hoonddds@hanmail.net

김영강 출판위원장

kaykim1211@gmail.com

그 밖에 연락이 편한 협회 임원들.

(원고를 보내실 때는 꼭 사진과 약력을
동봉해주십시오.)

미주문학

2007년 봄호
통권 제 38호

저자·발행 **미주한국문인협회**

website : www.mijumunhak.com

회 장 김동찬

이사장 장태숙

편집위원 김영교 최석봉 윤휘윤 한길수

윤석훈 김영강 류민희 오연희

김인자 이용우 강치범 정해정

최경희

편집·제작 도서출판 청동거울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9-4 동

영빌딩 내 Tel 02-584-9886~7

미주한국문인협회 연락처

Korean Literature Society of America

P.O.Box 761097

Los Angeles, CA 90076-1097

회 장(김동찬) (213)952-6730

e-mail soloktc@hanmail.net

사무국장(윤석훈) (213)605-3737

e-mail hoonddds@hanmail.net

미주한국문인협회

1982년 9월 2일 창립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비영리단체 등록

2000년 10월 31일

등록번호 2201276

- 연방국세청 면세번호 91-2148646

계간 〈미주문학〉 통권 제 38호(봄호)

2007년 3월 17일 발행

* 본지 게재 작품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US \$10.00

※ 본지 출판비 일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지원금이 사용되었습니다.